

◆ 북미

- 미국 IRC,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동향 발표
- 미국, 의료비 지출액 지속 증가 전망
- S&P, 채권보증보험사 MBIA 신용등급 AAA로 유지

◆ 유럽

- Lloyds, 동남아시아 테러위험 분석
- Allianz, 4분기 서브프라임 손실에도 2007년 양호한 수익 시현
- 영국 생명보험회사, 비만인 계약자에게 '비만세(fat tax)' 부과

◆ 일본

- 아이오이손해보험, 서브 프라임 관련 손실로 임원의 급여 일부 삭감 확정
- 니혼생명, 미국 Principal Financial Group에 추가 출자
- 생명보험업계, 계약자 대신 진단서 발급비 부담 확산

◆ 중국

- 중국 베이징(北京), 상주인구의 1% 만이 주택보험에 가입
- 2008년 중국 보험시장 보험료 성장세 호조
- 중국 내 외자보험회사 연말실적급 대신 우리사주 배분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IRC,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동향 발표

- 미국 Insurance Research Council(IR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보험 사고빈도(claim frequency)는 줄어 들고 있는 반면 사고심도(claim severity)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세 가지 주요 종목인 대물책임(property damage liability, PD), 대인책임(bodily injury liability, BI), 무과실 인명피해보상(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의 최근 흐름을 보여줌.
 -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대물책임 사고빈도는 11% 감소했으며 대인책임과 무과실 인명피해보상은 각각 19%, 14%씩 감소하였고, 이는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됨.
 - 반면 사고 당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사고심도는 대물책임, 대인책임, 무과실 인명피해보상에서 각각 18%, 22%, 1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9%, 3.3%, 2.9% 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고심도의 증가는 자동차 수리비와 의료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함.
- 보험가입 차량 한대당 평균 손해액은 사고빈도와 사고심도의 상반된 작용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지됨.
 - 1997년 이후 대당 평균 손해액은 200달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사고빈도의 감소추세 지속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IRC의 부원장인 Elizabeth A. Sprinkel은 지금까지 사고빈도의 감소추세가 자동차 수리비와 의료비 증가 효과를 상쇄해 왔지만 사고빈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할 경우 손해액은 증가하고 보험료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함.

(Insurance Journal, 2/28)

□ 미국, 의료비 지출액 지속 증가 전망

- 10년 후인 2017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이 지금의 두 배인 4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 조사기관인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이하 CMS)는 밝힘.
- CM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또한 2017년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2007년, 16.3%)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의료비 급증의 주요 원인은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연방 의료보험인 Medicare에 가입되기 때문이라고 CMS는 밝힘.
- 이러한 전망은 최근 의료비지출 증가와 다수의 보험미가입자 문제가 미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어 의미가 큼.
- 보고서는 2007년 의료비 지출규모를 2조 2천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2017년까지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증가율은 예상 GDP성장률인 4.7%와 예상 물가상승률 2.4%를 상회하는 수치임.
- 2007년 4,270억 달러 수준인 Medicare 의료비 지출은 2017년 8,840억 달러에 이르러 총 의료비 지출액의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Medicaid의 경우 연평균 7.9%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총 의료비 지출액의 약 17%인 7,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의료비 지출은 2009년 6.6%의 증가율을 정점으로 이 후 2017년까지 5.9%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율 감소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의 빠른 증가 때문임.
- 또한 처방약에 대한 지출은 2017년 5,160억 달러로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병원비용 지출 또한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1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Insurance Journal, 2/26)

□ S&P, 채권보증보험사 MBIA 신용등급 AAA로 유지

- 신용평가기관인 S&P는 채권보증보험사 MBIA에 대해 기존의 신용등급인 AAA를 유지한다고 밝힘.
 - S&P에 따르면 MBIA가 2008년 1, 2월 두 달간 26억 달러의 부채와 주식을 처분하면서 자본을 확충한 결과 동 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이유를 설명함.
 - 그러나 향후 6개월에서 2년간의 등급전망은 잠재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유지함.
 - 또한 S&P는 2위 채권보증보험사인 Ambac의 경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채권보증보험사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채권보증보험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상품 등의 보증을 통해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임.
 - Ambac은 은행, 감독당국 등과 협조하여 30억 달러를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P는 이 금액이 Ambac의 자본금 부족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밝힘.
- 채권보증보험사가 최고 신용등급을 잃게 되면 회사가 보증하는 채권의 신용등급도 떨어지게 되며, 최고등급 채권만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채권을 투매하여 차입비용을 상승시키고 은행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Oppenheimer&Co의 애널리스트인 Meredith Whitney는 채권보증보험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은행들은 700억 달러를 상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S&P의 이번 발표로 투자자들의 위기감이 진정되면서 S&P500지수는 1.38% 상승하였으며 국채가격은 하락하였음.

(Insurance Journal, 2/26)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Lloyds, 동남아시아 테러위협 분석

- Lloyd's와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협력연구리포트 “*Terrorism in Asia: What does it mean for business*” 발표를 통해 동남아 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테러는 지역마다 특이하고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동남아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경고함.
- 또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5가지 실행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정책 및 학술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함.
 - 사업지역은 직접 공격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선택하되 간접피해 리스크까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함.
 -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실행하기 알맞은 안전장치를 채택해야 함.
 - 공급망을 보호해야 함.
 - 지역사회에 적극 관여하여 그 지역의 관습과 전통을 이해해야 함.
- 동 사의 CEO인 Richard Ward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위협은 없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의 사업 운영은 복잡하고 특이한 지역적 이슈에 부딪히게 된다고 강조하였음.
 - 아시아의 경우 이슬람 세력의 테러는 적으나 지역에 따라 납치, 폭력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급진주의에만 초점을 맞춘 뉴스기사 탐독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처를 통해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함.

(Insurancejournal, 2/22)

□ Allianz, 4분기 서브프라임 손실에도 2007년 양호한 수익 시현

- 독일의 Allianz SE는 2007년 수익보고서를 통해 2007년 4분기 순수익이 전년동기(13.7억 유로)대비 51.5% 하락한 6.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난 달 발표한 잠정집계치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임.
- 그러나, 2007년 전체 수익은 79.9억 유로(117.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6년의 70.2억 유로(103.3억 달러) 대비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4분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5.1% 증가하여 109.2억 유로를 기록하였음. 4분기 하락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야기된 2007년 4분기의 전반적 경기위축 기조에 따른 것임.
- Allianz 그룹은 투자은행 업무에서 신용위기에 따라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나 기타 모든 사업영역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 드레스너뱅크의 4분기 4.6억 유로의 손실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 생명 및 건강보험과 자산관리 분야는 수익성있는 성장을 보였고 재물보험 영역 또한 여전히 강한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음.
 - 손해보험 분야는 보험료 수입이 지난 해의 437억 유로에서 443억 유로로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함. 합산비율은 지난 해의 92.9%에서 93.6%로 상승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7.7억 유로에도 불구하고 94% 미만 수준을 유지하였음.
 - Allianz 그룹의 총 수익은 지난 해의 1,011억 유로(1,488억 달러)에서 1,026억 유로(1,51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동 사의 CEO인 Michael Diekmann는 2007년의 도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룹의 다각화된 사업활동의 훌륭한 성과에 따른 것으로 개별 영역에서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Insurancejournal, 2/21)

□ 영국 생명보험회사, 비만인 계약자에게 ‘비만세(fat tax)’ 부과

- 영국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만세(fat tax)'를 부과하기로 함.
 - 그에 따라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보험 갱신시 신규 보험료에 약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흡연체이거나 병력 등 건강상태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 추가부담은 400%까지 상승할 수 있음.
 - 비흡연자이며 체중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55세의 남성의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시 15만 파운드를 받기 위해 연간보험료로 1,000파운드를 납입해야 하지만, 비만일 경우 추가로 500파운드를 더 부담해야 함.
- 영국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Legal & General은 BMI(신체질량지수) 3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키기로 했으며, 그에 따라 동 사의 보험계약자 중 13%는 신규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밝힘.
 - 동 사의 언더라이팅 부문 관계자는 BMI는 키와 체중으로 비만도를 계산하므로 높은 근육량을 요구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경우에는 판단지수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최적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두 번째로 큰 생보사 Norwich Union은 BMI 35부터 추가보험료를 적용시키기로 했으며, 3위 규모의 Friends Provident는 BMI 33 이상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를 실시하기로 함.
- ABI(영국보험자협회)의 대변인은 '비만세(fat tax)'부과와 관련하여 “비만은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흡연체나 병력 등 건강상태를 가진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언급함.
- 한편,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조정 기관인 금융옴부즈맨서비스(FOS)는 계약자의 체중과 몸무게의 올바른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사실과 다른 고지를 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거부당한 케이스를 사례로 들며 계약자가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DailyMail, 2/22)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아이오이손해보험, 서브 프라임 관련 손실로 임원의 급여 일부 삭감 확정

- 아이오이손해보험(Aioi Insurance)은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대규모 손실로 2008년 3월말 최종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일 경영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코다마 마사유키 사장과 임원에게 급여의 일부를 반납시킬 방침을 결정함.
- 구체적인 경영책임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4월부터 3개월간 코다마 사장의 급여 중 30%가, 부사장 2명의 급여 중 20%가 감액될 예정이며, 전무는 10%를 감액하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투자운용 담당임원도 급여의 20%를 감액할 예정임.
-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의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투자규모(작년 말 시점 1102억 엔)의 90% 상당액을 손실 처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적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주나 고객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영진의 급여 삭감 처분을 결정한 것임.
- 한편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약 1400억 엔의 손실을 낸 노무라 증권이 모회사 노무라홀딩스 또한 코가 노부유키 사장과 임원 3명의 급여를 2007년 10월부터 6개월간 30% 감액하기로 하였음.
- 아이오이손해보험이 경영책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서브 프라임 문제로 손실을 낸 다른 대형 금융기관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마이니치신문, 3/2)

□ 니혼생명, 미국 Principal Financial Group에 추가 출자

- 니혼(日本)생명보험은 지난 28일 미국의 금융·보험그룹인 Principal Financial Group(아이오와 주)과의 자본제휴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발표함.
 - 니혼생명은 약 440억 엔을 Principal Financial Group에 추가 출자하여 출자비율을 4.3%에서 7%로 끌어올려 대주주가 되었으며 Principal사와 제휴관계 강화를 통하여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Principal사는 총자산이 1,545억 달러로 법인 및 개인 생명보험 등 폭넓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건강보험과 유사한 단체 건강보험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미국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니혼생명은 2001년 Principal사가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시점에 처음으로 출자하였음.
 - Principal사도 니혼생명의 미국 자회사인 'USA니혼생명'에 약 3%를 출자하여 니혼생명의 보험계약 업무를 수탁하고 있으며 니혼생명의 직원을 교육시켜 확정각출형연금사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이번 추가 출자로 니혼생명의 출자규모가 1000억 엔을 넘어서면서 제휴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임원을 포함한 인재교류를 확대하여 Principal사의 핵심역량인 단체보험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일본의 성장 분야인 의료보험 등 제3보험 신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 또한, USA니혼생명과 공동으로 미국에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영국,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11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Principal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기대하고 있음.
 - 니혼생명은 2003년에 중국 상하이에 합작 생명보험회사인 '광전니혼생명 인수보험'설립을 시작으로 2004년 태국의 '방콕 라이프'를 인수한 바 있으며 향후 상호회사인 니혼생명의 '기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해외 보험 회사의 M&A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FujiSankei Business I, 2/29)

□ 생명보험업계, 계약자 대신 진단서 발급비 부담 확산

- 최근 일본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생명보험회사들이 대신 부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계약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누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후코쿠(富国)생명보험은 25일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탈락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던 계약자에 대해 보험금 재청구시 진단서 취득 비용 5000엔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조치를 3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함.
 - 이러한 비용 부담은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이 2007년 6월 업계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중견사인 오릭스생명보험이 동 8월, 외국계의 지브럴타생명보험이 2008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향후 일본의 생명보험업계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이나 급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임원이나 치료 수단 등을 기록한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서 발급비용인 약 5000엔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있음.
 -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그 부담이 보상될 수 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며 이 때문에 청구가 소액이거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애매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것이 보험금 지급 누락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함.
 - 이러한 계약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이치생명이 2007년부터 진단서 발급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금년 2월 15일까지 6,353건의 진단서 발급비용을 부담하였음.

(FujiSankei Business I, 2/26)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베이징(北京), 상주인구의 1% 만이 주택보험에 가입

- 베이징(北京) 보험업협회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인구의 손해보험 가입률이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고나 재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베이징 지역에서 체결된 손해보험 계약건수는 총 6만 9천 건이며, 베이징 통계국에 따르면 2005년 베이징시 상주인구는 556.4만 명으로 나타나 손해보험 가입률이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최근 2년 여 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택보험은 손해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 상품의 담보위험은 화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주택담보 손해보험 가입률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자동차보험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베이징 보험업계 전문가는 베이징 손해보험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강제가입 대상이었던 주택담보대출보험이 선택가입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대다수 소비자들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북경진보, 2/27)

□ 2008년 중국 보험시장 보험료 성장세 호조

- 금년 초 중국 보험업계는 대형재해와 주식시장 급락으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수입보험료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보감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내 보험회사가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총 1,064억 위안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약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중 생명보험 증가율은 78%에 이르고 있으며 손해보험 증가율은 31%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최근, 중국핑안(中國平安), 타이핑양그룹(太保集團), 중국손보(中國財險), 타이핑생명(太平人壽) 등이 발표한 1월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4개사 모두 지난 해 말 대비 약 20%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타이핑생명은 지난 해 말 대비 약 121%의 성장률을 기록해 성장을 측면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하였음.
 - 전문가들은 중국 생명보험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생명(中國人壽) 증가율 역시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연초부터 중국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사이 은행을 통한 기금 판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상대적 경쟁자인 보험상품의 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주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보험수요가 확대된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전하고 있음.

(신식시보, 2/28)

□ 중국 내 외자보험회사 연말실적급 대신 우리사주 배분

- 프랑스 악사(AXA)그룹의 중국 내 합자법인인 진성보험(金盛保險)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 약 230여 명이 오는 2010년까지 실적달성 조건부 보너스를 지급받게 될 것임.
 - 종업원들은 현금이 아닌 주식의 형태로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며, 종업원 1인당 100주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월 27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마감된 AXA 주식 종가 기준으로 약 3,583달러(한화 약 34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임.
- 진성보험이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배당하게 된 배경은 외국 측 주주인 AXA그룹이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AXA마일리지' 계획에 따른 것임.
 - AXA그룹은 '급여체계통일' 제도를 도입하면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종업원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금년과 내년에 각각 50마일리지, 총 100마일리지에 해당하는 회사주식 100주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한다는 계획임.
- 중국 내 합자회사인 진성보험 역시 AXA의 글로벌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금년과 내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오는 2010년 주식으로 교환될 예정임.
 - 일단 주식을 배당 받으면 곧바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보험회사 측의 설명이며, 업계 관계자는 "주식배당 규모나 배당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이는 종업원들의 충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증권시보, 2/28)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2.15(금)	08.2.22(금)	08.2.29(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02	5.05	4.97	-0.08
	美 10년국채	4.03	3.77	3.80	3.51	-0.29
	英 10년국채	4.51	4.60	4.69	4.47	-0.22
	日 10년국채	1.51	1.46	1.46	1.36	-0.10
주가	韓 KOSPI	1,897.13	1,694.77	1,686.45	1,711.62	+1.49%
	韓 KOSDAQ	704.23	651.57	653.12	655.94	+0.43%
	美 DJIA	13,264.82	12,348.21	12,381.02	12,266.39	-0.93%
	美 Nasdaq	2,652.28	2,321.80	2,303.35	2,271.48	-1.38%
	英 FTSE	6,456.90	5,787.60	5,888.50	5,884.30	-0.07%
	獨 DAX	8,067.32	6,832.43	6,806.29	6,748.13	-0.85%
	佛 CAC40	5,614.08	4,771.79	4,824.55	4,790.66	-0.70%
	日 Nikkei225	15,307.78	13,622.56	13,500.46	13,603.02	+0.76%
	中 상해종합	5,261.56	4,497.13	4,370.28	4,348.54	-0.50%
	대만 가권	8,506.28	7,876.37	8,108.71	8,412.76	+3.75%
	홍콩항셍	27,812.65	24,148.43	23,305.04	24,331.67	+4.41%
환율	원/달러	938.20	944.60	947.00	937.30	-9.70
	원/100엔	833.33	876.74	882.20	889.70	+7.50
	엔/달러	112.58	107.74	107.34	105.35	-1.99
	달러/유로	1.4722	1.4640	1.4813	1.5187	+0.0374
	위안/달러	7.3041	7.1900	7.1410	7.1125	-0.0285